

'646억 떼먹은 집주인' 등 악질 수두룩

블랙리스트 1위 박모씨 293건 계약서 사고

상위 30위 낸 사고 3459건 · 7250억원 달해

수도권에서 빌라(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속칭 '빌라왕' 김모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1위는 박모씨로 293건 계약에서 646억원의 세입자 보증금을 떼

어먹었다. 2위는 정모씨로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3위 이모씨는 286건 계약에서 581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4위 김모씨는 228건에서 533억원의 보증금 사고를 냈고, 진모씨의 경우에도 207건 계약에서 387억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보다 더 큰 피해를 낸 불량 집주인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들이 가진 법원에서 발생한 보증금 사고

건도 있어 세입자들의 피해금액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빌라왕'으로 불리는 김씨와 그가 세운 법원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171건, 보증금 사고 금액은 334억원이었다.

이를 포함해 상위 30위 악질 임대인들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총 3459건, 금액은 725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변제한 금액은 6587억원이다.

더욱이 이들 악질 임대인들이 보유한 주택 중 전세금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가 보유한 주택이 가장 많

이 몰려 있는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보증 사고 736건이 집중됐다. 이어 인천 부평구 부평동(189건), 서울 양천구 신월동(157건), 전남 광양시(131건)에서도 100건 이상의 관련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서울에서는 구로구 개봉동(84건), 금천구 독산동(67건), 관악구 신림동(50건), 양천구 목동(50건), 금천구 시흥동(48건) 등에서도 보증금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시 미추홀구 송의동(81건),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79건), 부천시 심곡동(78건), 인천시 서구 검암동(65건), 부천시 원미동(62건), 부천시 고강동(61건), 안양시 만안구(52건),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44건) 등에서 많았다. /뉴스

호남권 4분기 경기 제자리...제조 생산↓

석유화학·음식료품 감소...소비 '소폭증가'

올해 4분기 호남지역 경기는 3분기 대비 보험 수준인 가운데 제조업 생산은 감소했으나 민간 소비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전북본부 및 목포본부가 지역내 업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 동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4분기 중 호남권 경기는 3분기 대비 보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생산은 감소했다. 업종별로 석유화학과 음식료품은 소폭 감소했으나 자동차와 조선이 소폭 증가했으며 반도체, 석유정제, 철강은 전분기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향후 제조업 생산은 4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는 부품 수급 원활화, 조선은 기수주 물량의 생산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3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증가했으나 도·소매업과 운수업이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부동산업은 감소했다.

4분기 중 민간소비는 3분기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화 소비 중 내구재의 경우 자동차 가구 등의 판매가 늘어 증가했으며 준내구재는 통계 오류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다. 비내구재는 화장품, 차량용 연료가 보험 수준을 보인 가운데 음식료품이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했다.

서비스 소비의 경우 대면서비스의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보험세를 보였다.

4분기 중 설비투자는 3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화학은 2019~2021년 대규모 시설투자가 종료된 이후 시장 악화 등으로 신규 투자에 나서지 않고 기존 시설의 효율화 등에 중점을 두면서 보험세를 나타냈다. 철강은 신소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행해 소폭 증가했으며 여타 업종은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을 유지보수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 중 건설투자는 3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부문은 미분양주택이 크게 늘어나는 등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PF대출 감소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건축 착공면적이 줄어들었다.

/권형안 기자

광주은행, 금융소비자보호 '2년 연속 우수기업' 선정

광주은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발표한 2022년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지수(KCPI: Korean Consumer Protection Index)' 지방은행 부문에서 2년 연속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 거주자 약 1만7000여명에게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해 34개 산업, 1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직접 체험한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체감 정도를 조사했다.

금융권에 대해서는 10개 산업 6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광주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은행 부문에서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삼성전자, 1월1일부터 역대급 '세일 페스타' 삼성전자가 내년 1월1일부터 2월12일까지 '삼성전자 세일 페스타'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3회째를 맞는 2023년 행사는 가전·모바일 등 대상 모델과 구매 혜택을 확대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QLED TV(138cm·55형), 비스포크 그랜드 AI 세탁기(24kg)·건조기(20kg), 양문형 냉장고 등 90만원대 특별가 한정 모델을 늘렸다. /뉴스

올 원전 전력거래량 비중 7년 만에 최고

11월 누적 비율 30.7%...2015년 이후 최고

올해 11월까지 전력거래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 한파로 인한 전력수요가 최고치에 달한 가운데 원전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어 지난 2015년 기록을 넘어설 지 주목된다.

26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1월 원전 누적 전력거래량은 15만2985GWh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전력거래량(49만8757GWh)의 30.66%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5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다. 2015년 원전 거래량은 총 전력거래량(49만5360GWh)의 31.73%인 15만7167GWh로 조사됐다.

올해 월별 원전 거래량은 겨울과 여름철인 1월과 8월 각각 1만 5331GWh, 1만5477GWh로 가장 많았다.

원전 전력 거래 비중은 30%대를 유지하다 2017년부터 20%대로 떨어졌다가 올 들어 30%대를 회복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올해 한빛 4호기를 4년 만에 재가동하고

신한원 1호기를 준공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달 한파 모두 집계된 연간 원전 전력거래량이 2015년 기록도 넘어설 지 주목된다. 연말 전력 수요가 역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원전 가동도 활발하다는 점에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 최대 전력수요는 9만 4509MW를 기록했다. 이는 전날 오후 5시에 경신한 역대급 기록인 9만 2995MW를 1510MW나 넘어선 수치다. 지난해 동계 최대 전력수요(9만 708MW)보다 약 4.2%(3801MW) 많다. 이달 한파·폭설로 전력수요가 역대급 수준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

게다가 이달 전국 원전도 안정적으로 공급 중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빛 1호기와 신고리 2호기 정비를 마치고 투입된 상태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가동 원전 25기 중 22기가 운전 중인 만큼 많은 편이라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오버홀(분해 후 점검·수리)인 기기도 연내 가동은 어려울지 몰라도 1월 중에는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사업체 실태조사 발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2021년 기준 GFZ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종사자 수, 매출액, 수출액 등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실태조사는 업종별 입지실태 파악 및 경제자유구역이 지향하는 핵심사업 유치 성과를 측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해 정책 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종사자 기준 5인 이상 사업체와 1인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체 일반현황, 고용현황, 매출액, 경영상태 등 69개 항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2021년도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입주사업체 645개로 58%(8.3%) 감소 ▲종사자 수 1만9479명으로 1887명(10.7%) 증가 ▲매출액 8조 9782억 원으로 8745억 원(10.8%) 증가, 수출액 1조2907억 원으로 3050억 원(30.9%) 증가 ▲생산액 4조968억 원으로 114억 원(0.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체의 주 업종은 제조업이 218개사(33.8%)로 가장 많았으며 운수업이 123개사(19.1%), 요식업 및 숙박업이 40개사(6.2%), 건설업이 39개사(6.0%) 등이다.

광양만권경제청은 이번 사업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개발과 투자유치 전략 등 기업지원에 대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아파트값 24년만 최대 하락...세종·대구·대전·인천 '뚝'

1986년 조사 이래 역대 3번째 하락률...수도권 모두 하락

민간 부동산 통계에서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24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1년 동안 10% 넘게 하락하고 대구와 대전, 인천,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도 연간 5% 이상 하락률을 기록했다.

KB부동산은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3.43% 하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98년(-13.56%)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이다.

또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6년 이후 역대 3번째로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998년 13.56% 떨어지면서 가장 많이 하락했고, 1992년 4.97% 하락률을 보였

는데 올해는 -3.43% 변동률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11.46% 떨어지면서 연간 10%가 넘는 하락률을 보였다.

이어 대구가 7.11%, 대전 6.88% 떨어지면서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인천은 6.54% 떨어졌고, 경기 -5.47%, 서울 -3.19% 등의 순으로 하락했다.

반면 기타지방은 전남(-2.65%)과 충남(-0.31%)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아파트매매가격이 상승했다.

강원이 4.87%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제주·서귀포(4.56%) ▲전북(4.48%) ▲광주(0.73%) ▲경북(0.51%) ▲경남(0.50%) ▲충북(0.19%) 등을 기록했

다. 올해 아파트값이 역대급 하락률을 보이면서 평균 매매가격도 1년 새 2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은 5억5561만원이었는데 12월에는 5억3367만원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경기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6억 1331만원에서 5억8478만원으로 하락했고, 인천도 4억5294만원에서 4억 3290만원으로 떨어졌다.

반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5969만원에서 12억6421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한편 민간 연구기관들은 내년에도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제위기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3년 전국 주택가격이 3.5%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5%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뉴스

작년 대졸자 취업률 67.7%... "코로나 유행 전 수준 회복"

건보기업자 유지취업률 79.7%...0.3%p 하락

지난해 대졸자의 취업률이 코로나 19 유행 전 수준을 회복했다. 직장 유지 취업률은 감소했는데, 교육부는 직장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1인 사업자와 프리랜서가 많아진 결과라고 해석한다.

졸업 후 취업 직장인의 월 평균소득은 275만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2만3000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DL 26일 공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대졸 취업대상자

47만3342명 중 32만685명이 취업해 전체 취업률은 67.7%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8년(67.7%)과 같고, 2020년 65.1% 대비 2.6%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취업률은 최근 4년간 67.7%→67.1%→65.1%→67.7%를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5년도부터 봤을 때 67%대를 유지해 왔으나 2020년과 지난해 큰 변동폭을 보인 것"이라며 "경기 회복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졸업자 수는 54만9295명으로 전년도 55만3521명에

서 4226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31만2430명에서 32만685명으로 8255명 증가했다. 학부 졸업생은 3.1%포인트 상승한 64.1%였으며 일반대학원(석·박사)이 2.4%포인트 높아져 82.6%를 나타내 가장 높았다. 전문대 졸업자는 71%였다.

다만, 전체 유지취업률은 79.7%로 전년도의 80%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유지취업률은 11개월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취업자의 비율이다. 작년 12월 말 취업 대졸자 28만9809명 중 5만 8759명(20.3%)이 퇴직이나 창업, 프리랜서 전환 등으로 올해 11월까

직장 건강보험을 잃었다는 이야기다.

중기 장기근속자에 주택 특별공급 우대

중기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침 개정

내년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공급시 무주택자 우대가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으로 추천한다.

공급면적과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된다.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이 공급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특별공급 대상자에 배점기준표를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하고 있다. 현행 배점기준은 재직기간(75점), 정책적우

대(25점), 무주택기간(5점)을 포함한 가·감점(±10점) 등 총 110점 만점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만점 대비 무주택기간 가점의 비중이 낮아 오랜 기간 무주택인 장기근속자에 대한 차별력이 부족했다.

중기부는 오랜기간 무주택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른 배점한도를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확대했다. 배점 기준이 되는 무주택기간도 당초 '5년 이상'에서 '최대 15년 이상'까지 구분해 배점을 차등 부여하도록 개설했다.

또 기존 '기술·기능인력'과 '핵심인력'(7점), '자격증 보유'(3점)로 구분해 있던 비슷한 유형의 두 항목을 '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10점)으로 통합한다.

각 세부항목 간 난이도와 위상을 고려해 '연구전담요원 재직 근로자' 배점한도를 5점에서 3점으로 하향하고 '기술사와 기능장'은 3점에서 4점, '기사'는 2점에서 3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